

大學教授의 스트레스

李 勳 求

(延世大 心理學科)

1. 教授와 神仙 놀음

여름 방학이 돌아왔다(이 글이 출간되었을 때는 이미 여름 방학이 끝났을 지 모르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몇몇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본다. 상대방의 반응이 온다. “어! 李교수 웬일이야! 안부 전화를 다 걸고, 또 방학이 시작된 모양이군! 참, 교수가 부럽단 말이야!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 꼭 쉬고.”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본다. 교수는 정말 한가하고 부러운 직업인가? 얼핏 생각해 보면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방학시에는 강의가 없으니까 꼭 학교에 나갈 필요가 없고 개학중이라도 교수의 직무는 기업체나 다른 공공 기관의 업무보다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다.

한때 시중에 교수직에 관한 풍자가 나돈 적이 있었다. 교수와 거지가 어디가 같은가? 같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중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고, 말로 벌어 먹고, 높아갈수록 들고 다니는 것도 없다(교수는 책가방, 거지는 짱통).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예컨대,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일을 마감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직장인은 항상 긴장하고 초조하다. 거기에 비해 교수는 출근 시간을 자기에게 맞게 조절할 수 있

고 연구나 강의도 자기 몸의 조건에 따라 그 진도를 조정할 수가 있다. 소위 전문직 또는 자유직업이 갖는 여유를 교수들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외에 교수는 승진이나 출세를 위한 안간힘을 쓸 필요가 없다. 기업체나 공공 기관에는 여러 층의 계급이 있어서 승진을 위해 동료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고 승진에 낙오된 사람은 커다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된다. 거기에 비하면 교수직은 신분상의 차이나 계급이 없고 승진이란 개념이 미약하다.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했다고 해서 당사자가 자랑스럽게 느끼거나 친구가 축하를 해주는 것도 아니다. 교수에게는 상사도 없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도 않고 교수의 직무를 평가하지도 않는다. 많은 직장인들이 상사의 눈치를 살피가며 일하고 맡겨진 임무가 실패하여 인사·교과가 나쁘게 평가될까 보아 전전긍긍하는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확실히 교수직은 신선 놀음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직은 과연 신선 놀음인가?

내가 내 자신을 둘러보아도 신선 놀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생각이 난다. 박사과정 초기(미국에서는 그냥 대학원과정이라 하여 석·박사과정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지만)에는 이수해야 할 학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듣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학과

목 이수가 다 끝나면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 즉, 이때가 논문을 준비할 때인데 매일 학교에 나갈 필요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1주일에 한두번 지도 교수를 만나서 그동안의 논문 진척 상황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이 주요 일과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친구가 찾아오면 친구 따라 주중이라도 놀러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놀러 나가도 신이 나지 않고 머리 속에는 항상 논문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꽂차 있다.

학위를 받고나서 대학 교수가 되면 그러한 강박 관념은 없어지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논문을 쓸 당시의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방학이 돌아와서 시간의 여유는 있는데 마음과 몸은 한가롭지가 않다. 하고 싶은 연구의 主題가 잡혔는데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막연하다. 그동안 필요한 관계 서적을 수소문했는데 아직 마땅한 책이 눈에 띄이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가 다 입수되더라도 그때부터는 더욱 신경이 예민해진다. 그때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강구해야 하는 각고의 시간이다.

꼼꼼히 생각해 보면 교수직은 끊임없는 자기 불만과 무엇인가 큰 논문(큰 업적)을 써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직업이다. 교수는 박사 논문을 앞둔 학생과 마찬가지로 항상 쫓기고 있다. 박사 논문을 앞둔 학생은 이를 끝냄으로써 자기 임무가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교수의 학문의 세계란 끝이 없다. 학문에 있어 하나의 끝맺음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교수직은 영원한 논문을 쓰기 위해 영원히 강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각고의 생활이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에 다니는 친구가 주중을 바쁘게 지내다가도 주말에는 만사를 잊고 신나게 노는 것을 볼 때는 부러운 생각이 든다. 그들에게는 시·공간적으로 주어진 임무가 있으나 그 임무는 어느 시·공간에서는 끝나게 되어 있고 그때 그때마다 이들은 성취감과 안도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학문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

교수가 갖는 커다란 스트레스의 원천은 시작도 끝도 없는 학문의 세계를 무인도에 내버려진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외롭게 혼자서 헤쳐 나가는 데 있다. 교수의 학문의 길에는 커다란 박수도 없고 거들어 주는 동료도 없다. 오히려 그곳에는 일반인 및 同學者들의 비판과 조소의 비바람이 있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러한 점이 일반적으로 교수가 그의 직업에서 갖는 원초적인 스트레스의 근원이다. 다음에는 글 머리를 돌려서 교수직의 보다 세부적인 스트레스의 원천을 살펴 보기로 하자.

2. 權威와 스트레스

모든 직업인들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남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을 받으려 한다. 대통령, 사장, 의사들은 각기 국민, 종업원, 환자로부터 신망을 받고 존경을 얻으려 한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신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들은 자기가 각기 해야 할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이를 성취할 수 있다. 대통령은 나라의 정치를 잘 풀어 나감으로써 사장은 많은 이득을 내고 따라서 종업원에게 월급을 많이 줌으로써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병을 확실히 고쳐줌으로써…….

그러면 교수는 어떻게 해야만 자기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고 학생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 교수직의 책무는 教授와 연구이다. 따라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그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잘 가르치려면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교수가 갖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앞에서 교수에게는 그의 업적을 평가하는 상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교수의 능력을 감시하는 상사가 아닌 학생들이 있다. 칠판에 수학 문제를 틀리게 쓴 교수가 있다고 가정하자. 어느 학생이 교실에서 이를 지적했을 때 그 교수의 등어리에는 진땀이 흐를 것이다.

많은 교수들이 학기중에 꿈쩍 못하는 것은 수업 준비로 인하여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한 시간 강의를 심도있게 진행하려면 3~5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학부의 강의에 국한되는 것이고 대학원의 경우는 며칠을 준비해야 한 시간의 수업이 되는 때가 있다.

전문 직업인들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이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 관계가 악화된다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재미 있는 연구가 있다. 최근 사회심리학자들은 의사와 환자간의 인간 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는 아주 원만해야 하는데 따라서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의 지시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의사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여 환자로부터의 불만이나 의료 告訴가 전혀 없는 반면 어떤 의사는 환자와 잦은 충돌을 일으키고 고소를 도맡아 당한다. 그런데 의사들의 이러한 불상사는 의사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한 스트레스에서 근원한다는 것이 사회심리학자들의 해석이다. 의사들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로부터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환자에게 자신이 아주 실력있는 의사인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젖어 있다. 이러한 강박 관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환자와의 관계가 엉망이 된다. 강박적인 의사는 항상 환자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그가 자기 실력을 의심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예민하게 반응한다. 예컨대 자기 병이 지금 잘 나아가고 있느냐, 치료 대책이 무엇이나 하고 의사에게 물으면 강박적인 의사는 이 환자가 자기의 능력에 의심을 품는 것으로 착각하여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는 환자에게 잔소리말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라고 욱박지르기가 일쑤다. 환자는 의사가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척만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더욱 가중된다. 그러다가 어찌하여 치료가 잘못되면 “옳다쿠나, 잘 됐다. 너좀 한번 당해 보아라” 하고 그 의사를 고소한다.

그러나 권위 인정에 대해 덜 강박적이고 자신 있는 의사는 환자의 질문에 친절히 대답해 주고 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환자에게는 솔직히 자신의 한계를 토로해 준다. 예컨대, 어떤 환자가 이 의사에게 자기 병을 고칠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자기도 가끔 틀릴 수가 있으므로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한다. 이러한 의사에 대해서는 환자가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따라서 설사 나중에 치료가 잘못되더라도 의사만의 잘못으로 돌리지는 않는다.

대학 교수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권위의 인정에 대한 강박적 욕구 때문에 학생과의 인간 관계가 나빠지기 쉬운데 이는 정교수보다는 전임 강사나 시간 강사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정교수가 되면 어느 정도 능구렁이가 다 되어 학생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이를 어물쩍 넘기거나 또는 자기는 모른다고 실토를 한다. 그러나 시간 강사나 전임 강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을 자기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당황하거나 화를 내어 학생과의 관계가 험악해지기 쉽다. 이러한 비극은 모두 교수는 많이 알아야 학생들로부터 신망을 받는다는 강박적인 생각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고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교수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3. 個人 對 集團 活動

교수직은 관공서나 기업체와는 달리 공동으로 추구하는 작업이 드물다. 교수 활동은 각 교수가 핵심이 되는 개별 활동이어서 모든 것은 교수 혼자서 결정하고 단독으로 수행해 나간다. 따라서 교수직은 각 개인의 능력 및 특창적 활동이 크게 강조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교수는 각 科나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협동해야 하는 일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敎授의 총원 및 선발, 석·박사과정의 운영, 커리큘럼의 개발 및 활용 등이다.

어느 조직체 또는 집단이나 협동을 할 때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즉, 각자의 견해, 이익, 관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동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의견이 상충된다. 집단이 공동 과제를 불만족스럽게 해결하게 되면 그 집단 성원들은 계속 긴장하게 된다. 각 科는 다른 관공서나 기업체와는 달리 인사 이동이나 전근이 없다. 어떤 사람이 어떤 科에 소속이 되면 그 사람은 정년 퇴임 때까지 그 科의 일원이 되지 다른 科나 다른 대학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어떤 科의 교수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할 때 그 여파는 이동이나 전근이 있는 기업체

에 비해 더 크다. 외국에서는 科에서 교수를 채용할 때 만장일치를 보아야 뽑는다. 이것은 교수간의 화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한 인사 선발 정책이다.

교수직은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학문은 독창적이고 어느 정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자존심이 강한 반면 남과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공동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많은 난관이 있기 쉽고 그 때문에 교수간의 불화가 생기기 쉽다. 이러한 불화가 심화되면 같은 科 教授끼리 서로 얼굴을 의면하고 상호 비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학생들도 교수에 따라 편이 갈라지기까지 한다. 이러한 인간 관계의 불화가 교수가 겪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 쉽다. 결국 교수의 성공적인 역할은 개인 플레이와 팀 플레이를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데 있다.

4. 師弟關係

교수직이 갖는 한 가지 장점은 제자를 길러 낸다는 데 있다. 훌륭한 제자를 가졌다는 것은 마치 똑똑한 자식을 둔 것이나 다름없이 든든한 것이다. 그리고 학문은 당대의 교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하다.

현재의 40~50대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에서의 사제지간의 정은 돈독했다. 소위 '君師父一體'라는 유교적 관념이 그대로 지탱되어 교수의 권위와 체통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세태가 많이 달라짐을 의식한다. 급진적 운동권 학생들은 교수들이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제5공화국 말기에는 학교로부터 소위 문제 학생을 면담·지도하라는 지시를 많이 받고, 따라서 교수들은 반 의무적으로 이들과 면담을 해야 했다. 이들을 면담한 많은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대학에서의 사제 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한탄했다. "그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분노한 교수까지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 교수들은 그들의 時局觀·人生觀 그리고 價値觀이 자기의 전혀 다

름을 발견했고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제자들이 교수들의 설득에 전혀 수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모든 학생이 다 운동권 학생이 아닌 것처럼 모든 학생이 교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수들을 존경하고 따르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다. 그러나 다수의 고분고분한 학생보다 소수의 운동권 학생이 학생 대표로 일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조우는 교수로 하여금 교수직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할 때가 많다.

사제지간의 마찰은 平教授보다는 보직 교수에게서 더욱 심각하다. 금년초 운동권 학생들은 종래의 정치적 투쟁에서 학내 문제에 관한 투쟁으로 그 투쟁의 양상을 바꾸어 모든 학교가 흥역을 치루었다. 이들은 학교의 운영에 자기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교수의 채용, 커리큘럼의 제작에도 자기들이 관여해야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대학 사회에서 수용하기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직 교수들은 이들과 타협하고 설득하는 데 고심을 하고 있고 사제지간의 한계를 더욱 절감하고 있다.

조만간 우리의 정치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학생 운동이 수그러들면 사제 관계는 원상 복귀될 것이다. 현재의 암울한 사제 관계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고 또 그래야만 대학과 학문의 발전이 있다.

5. 教授 집단간의 軋轢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수 사회는 신분과 계층의 상·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 계층간의 불화가 없다. 즉, 교수면 다 똑같은 교수이지 전임 강사와 정교수가 신분이나 계급이 다른 것은 아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학장이나 총장이 교수의 임용·승진을 좌우하는 것으로 오인하나, 실제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총장과 학장의 정교수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구조상 대학 사회에서는 교수 집단이 대립될 소지가 적고 아울러 집단간의 알력을 생각하기 어렵다.

일부 대학에서는 보직 교수 대 평교수간의 알

력이 있는 것같은데 그 원인은 보직 교수들이 전횡을 하고 있다고 평교수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교수들이 보직 교수를 斜視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 보직 교수들은 그들의 학문 활동을 희생하면서 보직을 맡고 있다. 따라서 많은 대학에서는 평교수들이 오히려 보직 교수를 위로해 주고 도와주려는 태도를 갖고 있지 기업체에서처럼 관리자를 경원하는 태도로 보직 교수를 대하지 않는다.

최근 우리의 정치적 상황의 부산물로 소위 서명 교수 또는 교수협의회 교수 집단이 생겨난 적이 있다. 서명 교수란 제5공화국 말기에 교수들의 시국 선언에 서명한 교수들이다. 당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많은 곳에서는 30~40명, 적은 곳에서는 10명 내외의 교수들이 정부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다. 당시 언론이나 일반인들은 이들 시국 선언 서명 교수들과 비서명 교수들간의 알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예측과는 달리 이 두 집단간의 불화는 없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서명 교수나 비서명 교수간에는 근본적으로 시국관·정치관·인생관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즉 비서명 교수라 해서 민주화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들간의 차이점은 앞장 서서 서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뿐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보다 급진적인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색채를 띤 활동을 하는 교수들이 한두 사람씩 생겨났다. 이들은 급진적인 학생운동도 수용해야 된다는 과감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보수주의적 교수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들이 대학에 많이 생겨나면 자연 교수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것이다. 즉 급진적 교수 앞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국 이야기는 피하고 가벼운 화제를 나누려 시도할 것

이다. 아직은 각 대학에서 이러한 급진적 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교수들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으나 만약 이러한 교수들의 수가 증가한다면 이는 교수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것이다.

6. 맺는 말

이외에 교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으로는 과중한 강의 부담, 연구 시설·자금의 부족, 경제적 곤란 등을 들 수가 있지만 이것은 지면 관세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고 보니 교수직이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인 것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직종에 비하면 교수는 스트레스가 적고 교수는 다른 직업인보다 장수하는 편에 속한다. 산업심리학자가 여러 종류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무 만족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순 기능직이 직무 만족도가 제일 낮고, 가장 직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교수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필자가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일까? 사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요소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은 서로 무관하다. 빙벽 등반가에게 있어서 빙벽 등산은 즐거운 도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는 빙벽 등산 자체는 커다란 스트레스의 원천이다. 교수직이 갖는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교수들은 외롭고 지루한 그리고 보상이 적은 학문의 세계를 도전과 보람으로 간주하고 이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스트레스로 느끼는 학문 세계는 그들에게 오히려 즐거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교수가 장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다. *